

The Influence of Social Feedback on Emotion and Self-Esteem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Depression

Ji Sun Lee Hyang 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changes in emotion and state self-esteem of depressed individuals after social feedback. For this purpose, 26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on (DIs) and 29 healthy controls (HC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positive or negative feedback condition and asked to converse with a confederate. Changes in emotion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and state self-esteem after the feedback were measured by Visual Analogous Scale and Korean Version of State Self Esteem Scale, respectively.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self-esteem, but not in emotion, between group and feedback condition was found. Specifically, HCs' state self-esteem was unchanged after feedback. For DIs, state self-esteem was positively changed only after positive social feedback. The result indicated that, compared to HCs, DIs' state self-esteem was more sensitively affected by social feedback.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interpreted in terms of integration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theories, an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depression, social feedback, emotion, self-esteem

우울증은 임상장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신과적 장애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2)에 의하면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25%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60%가 첫 삽화를 겪은 뒤 두 번째 삽화를 경험하며, 두 번째 삽화를 경험한 사람의 70%가 세 번째 삽화를 경험한다. 우울증은 유병률과 재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의 50%가 우울 삽화를 보고할 만큼 치명적이다(Kessler et al., 2003). 이처럼 우울증은 흔하면서도 심각한 장애이므로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오늘날 우울증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 중 하나는 Beck의 인지 이론이다(Beck, 1967). 이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알려져 있다(Vaughn, 2001).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정보처리의 편향이 발생하며(Bradley & Mathews, 1983; Hammen & Zupan, 1984), 이로 인해 우울한 개인은 부정적인 사건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부정적인 상황에 더욱 매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1967).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우울한 개인의 자기개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자기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인식,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Kwon, 1996)으로, 자기와 관련된 일화적, 의미론적 기억을 포함하는 잘 조직화된 도식(schema)이다. 자기개념은 크게 '자신에 대한 지식 측면(self-knowledge)'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측면(self-evaluation)'으로 나뉜다. 그 중,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측면이 흔히 자존감으로 규정된다(Campbell & Lavelle, 1993). 즉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

[†]Correspondence to to Hyang 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Korea; E-mail: hyangkim@sogang.ac.kr

Received Sep 02, 2017; Revised Feb 03, 2018; Accepted Feb 05, 2018

This paper is taken in part from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Sogang Univers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2014S1A5A8018873). We are grateful to Daseul Lee and Soyung Kim for research assistance and Sumi Park for statistical and writing advice.

반적 평가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자기 평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Judge, Thoresen, Bono, & Patton, 2001).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따라서 연구자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 평가’, 즉 자존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보이는 각종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인 특성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연구 결과,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신경증적 증상과 정서적 고통감을 보고한다(Brown, 2010; Hokanson, Rubert, Welker, Hollander, & Hedeem, 1989).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더 경험한다(Whisman & Kwon, 1993). 특히 낮은 자존감과 우울 간의 관련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온 사실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의 지속성 우울 장애 진단 기준에는 낮은 자존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존감과 우울 사이의 인과적 관계, 즉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자존감의 저하가 단순히 우울의 증상으로서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혹은 선행 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우울장애의 예방적 개입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그 인과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한편 우울과 자존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살펴보면 크게 상처모델(Scar model; Coyne, Gallo, Klinkman, & Calarco, 1998)과 취약성 모델(vulnerability model; Orth, Robins, & Roberts, 2008)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우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상처모델보다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우울이 유발된다는 취약성 모델이 지지를 얻고 있다(Sowislo & Orth, 2013; van Tuijl, de Jong, Sportel, de Hullu, & Nauta, 2014). 이에 따르면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 경로’ 혹은 ‘개인 내적 경로’를 통해 우울감을 유발, 지속시킨다.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문제는 우울감 재발의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Hammen, 2003; Hammen, 2009), 우울의 기제를 대인관계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약성 모델의 대인관계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결국 긍정적인 자극을 얻지 못하게 되어 우울이 발생, 지속되는 경로를 들 수 있다(Ottenbreit & Dobson, 2004). 두 번째는 자기 고양 이론에 따른 것으로(self-enhancement theory; Chen, Chen, & Shaw, 2004),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에게 과도한 안심을 구한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은 증가되고, 타인의 거절이 반복되면서 우울감이 유발, 지속된다는 주장이다(Joiner, 2000). 마지막으로 자기 확증 이론(self-verification theory)에 의한 경로이다. 낮은 자존감을 지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고자 낮은 자존감을 확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추구한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피드백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어 우울감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선호가 우울감을 지속시킨다(Swann, 2011; Swann, Wenzlaff, & Tafarodi, 1992).

특히 이상의 대인관계 경로 중, 자기 확증 이론과 자기 고양 이론 경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우울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Alicke & Sedikides, 2011; Swann, Chang-Schneider, & Larsen McClarty, 2007; Valentiner, Skowronski, Mounts, & Holzman, 2017). 즉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한 개인이 보이는 동기와 반응을 확인하여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찾고, 적합한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확증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wann, 2011; Swann et al., 1992). 반면, 자기 고양 이론에 의하면 치료에서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도록 개입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자기 열등감에 몰두하게 만들거나 실패를 변명하고 행동을 지연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Ko, 2014). 따라서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는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자기 확증 이론과 자기 고양 이론을 통합하여 최근 Swann, Griffin, Predmore와 Gaines(1987)는 사회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개인은 인지적 수준과 정서적 수준에서 상이한 동기를 따르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인지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개념에 부합하는 피드백을 선호하는 자기 확증 이론을, 정서적인 수준에서는 자기 고양 이론을 따른다는 주장이다. 비록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우울이나 분노감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이를 꺼리기 때문에 정서적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Joiner, Alfano와 Metalsky(1992)도 통합 모델을 통해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추구하는 경향(자기 확증 이론)과 과도한 안심을 구하는 행동(자기 고양 이론) 모두를 보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로 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ignoles, Regalia, Manzi, Golledge와 Scabini(2006)

는 한 개인이 두 동기를 모두 경험하지만, 인지적 수준에서는 자기 확증 동기가, 정서적 수준에서는 자기 고양 동기가 보다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두 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그 경험적인 증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는 자기 고양 및 확인 동기를 탐색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를 우울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대인관계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제된 사회실험을 실시하여 실제로 사회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기 고양 동기와 자기 확증 동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적 상황이 아닌 타인과 실제로 상호작용한 이후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우울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인지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고 있는데(Butler, Hokanson, & Flynn, 1994; Zeigler-Hill & Abraham, 2006),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자극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자존감 변화 간 정확한 인과 관계를 포착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또한 일상 생활 도중 여러 차례 설문지에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 응답이 누락되는 경우가 잦고, 참가자들이 매번 응답에 성실하게 대답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reenier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우울한 개인이 보이는 반응을 통제된 실험 환경 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론에 따라, 인지적 수준과 정서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구분하였다. 이 때 인지적 수준에서의 변화는 상태 자존감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는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며 정서와 구분되는 인지적 구성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기반한 것이다(Cai, Brown, Deng, & Oakes, 2007; Heatherton & Polivy, 1991).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자기 확증 이론 및 자기 고양 이론을 통합하는 통합적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존감과 기분의 변화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집단의 참가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통제집단과 달리,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정서적, 인지적인 불일치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집단은 낮은 자존감에 부합하지 않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인지적인

수준에서 자기 확증 동기가 작용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존감 수준에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둘째, 정서적 수준에서는 자신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고양 동기가 작용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른 긍정 정서의 상승 및 부정 정서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울한 개인은 자기 확증 동기의 영향으로 낮은 자존감에 부합하는 부정적 피드백을 수용하며, 이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고양 동기가 좌절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는 하락하고 부정적 정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참가자

참가자 모집 및 연구 절차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서울 소재의 S대 학부생 274명에게 한국판 벡 우울 척도 2판(BDI-II)을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가를 동의한 여자 학부생만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10대에서 50대 사이 여성의 우울증 발병 위험도가 남성에 비해 1.7에서 2.7배 높고(Burt & Stein, 2002),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와 관련된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Angst et al., 2002)는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Joiner 등(1992)의 연구에서 타인에게 안심을 구하는 행동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행동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성별에 의해 달리 나타났다. 이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성 참가자와 여성 동조자 조합으로 연구 참가자를 구성하였다.

한국판 BDI-II의 점수 절단점이 17-19점 사이일 때 민감도 및 특이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im et al., 2011). 이를 토대로 후속 실험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 중 BDI-II 점수가 17점 이상인 32명은 우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의 경우 BDI-II 점수가 5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32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연구들(Deepröse & Holmes, 2010; Kellough, Beevers, Ellis, & Wells, 2008; Koster, De Raedt, Leyman, & De Lissnyder, 2010; Swann, Wenzlaff, Krull, & Pelham, 1992)이 우울한 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BDI-II 점수 4-5점을 기준으로 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64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통제-긍정피드백 14명, 통제-부정피드백 15명, 우울-긍정피드백 13명, 우울-부정피드백 13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 중 2명은 연구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4명은 실험 참가자 모집용 설문지의 BDI-II 점수와 실험 당일 BDI-II 점수가 급격히 변하여(사전 BDI-II 점수→사후 BDI-II 점수: 20점→10점, 17점→11점, 0점→17점, 21점→7점) 기존의 우울 및 통제집단 절단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3명은 정서 및 자존감 변동 수준이 평균에서 2 표준편차보다 벗어난 극단값으로 제외되었다.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은 20.48, 표준편차는 1.46이었으며, 우울집단의 평균연령은 21.12, 표준편차는 1.58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53) = 2.39, p = .13$. 통제집단의 BDI-II 기저선은 3.48, 표준편차는 1.72였고, 우울집단의 BDI-II 기저선은 20.73, 표준편차 3.3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53) = 593.25, p < .001$. 실험 당일 재측정한 BDI-II 점수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53) = 71.39, p = .00$.

측정도구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Second Edition, BDI-II)

한국판 Beck 우울척도는 우울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Beck, Steer와 Brown(199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범위는 0-3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ng 등(200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Beck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92였으며, Su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94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상태 자존감 척도(Korean Version of State Self-Esteem Scale, K-SSES)

상태 자존감 척도는 Heatherton과 Polivy(1991)가 개발한 척도로 자존감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된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2013)의 번안을 사용하였다. Heatherton과 Polivy(1991)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2, Park(2013)의 연구에서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본 척도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실험 상황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걱정한다”, “나

는 내가 성공한 이로 여겨질지, 실패한 이로 여겨질지 걱정한다” 등이 있다.

시각 유추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본 연구에서 긍정/부정 정서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Zealley와 Aitken(1969)이 개발한 시각 유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경우는 10 cm의 선 위에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체크하도록 설계되었다. 긍정 정서의 경우 ‘행복한, 기쁜, 만족한, 희망적인’이라는 제시어가 주어지고 선의 왼쪽 끝은 ‘보통’, 오른쪽 끝은 ‘매우 그러함’으로 수준을 표기하였다. 참가자가 표시한 지점이 왼쪽부터 몇 cm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수치화하였다. 부정 정서의 경우의 제시문은 ‘불행한, 짜증난, 불만족스러운, 우울한, 절망적인, 따분한’으로 주어졌으며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호감도 측정 척도(Willingness to Interact Scale, WILL)

실험 파트너의 호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Coyne(1976)의 호감도 척도로, 기존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호감도 측정 척도는 참가자들에게 긍정/부정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긍정/부정 피드백 제공 단계에서 호감도 측정 척도의 점수를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실험 단계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파트너인 동조자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였으며, 동조자 역시 참가자에 대한 호감도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참가자에게 제공된 파트너로부터의 호감도 점수는 참가자의 실제 호감도와는 관련 없이 긍정 피드백/부정 피드백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 총 8문항이며, 9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점: 전혀 아니다, 9점: 매우 그렇다). 문항 내용은 추후 상대방과 얼마만큼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호감도를 묻는 내용이며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상대방을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을 당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상대방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5로 Coyne(1976)의 .81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절 차

본 실험은 이전의 연구(Swann et al., 1992)를 참고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 및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Swann 등(1992)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드백을 확인하기 위해 긍정 평가자와 부정 평가자를 동시에 제공하였고 해당 평가를 신뢰하는 정도를 물었다. 또한, 긍정 및 부정 평가자 중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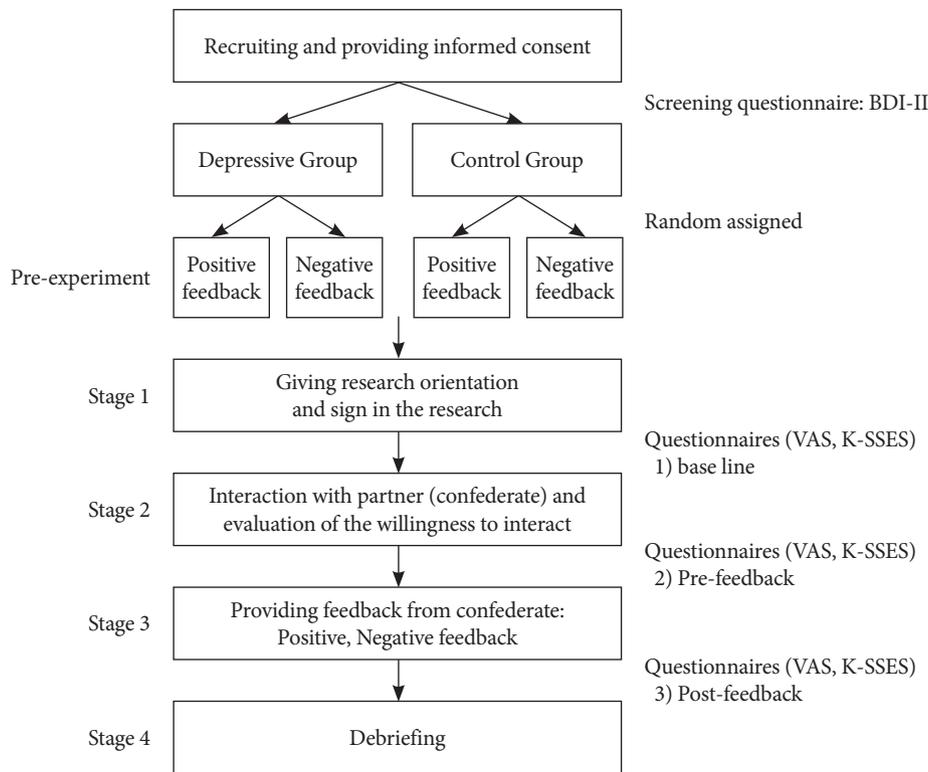


Figure 1. The research process.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동조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도록 과정을 변경하였고, 피드백을 조건에 따라 부정 평가, 긍정 평가 중 한 가지만 제공하였다. 또한, 평가 제공의 경우, 성격 특성을 기술해 놓은 평가지가 아닌 호감도를 점수화한 평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실험은 한 명의 참가자와 한 명의 동조자가 대화를 나누고, 파트너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한 뒤, 상대방이 평가한 호감도 점수를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가 받은 피드백은 실제 실험 동조자가 평가한 것과는 무관하였으며, 미리 설정된 실험 조건에 따라 긍정 피드백 혹은 부정 피드백 점수로 제공받았다. 참가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시점에서 자존감과 정서에 대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 기저선: 실험실에 입실하여 연구 설명을 들은 직후, 2) 피드백 전: 파트너와 대화를 나누고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3) 피드백 후: 자신에 대한 파트너로부터의 호감도 피드백(긍정/부정)을 받은 후. 마지막 디브리핑 단계에서 참가자들에게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참가자가 동조자였음을 밝혔고, 연구 설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조자는 두 명의 학부 4학년 여학생으로,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연구 절차를 따랐다. 또한 동조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실험 연구는 크게 세 단계(기저선, 파트너와 대화 및 파트너 호감도 평가[피드백 전], 파트너로부터의 피드백 제공[피드백 후])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전체 과정은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소개 단계

첫 단계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는 단계로, 연구의 대략적인 소요시간 및 실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과정 소개 때, 연구 과정 중에는 글을 쓰거나 연구에 함께 참여한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컨디션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실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었다. 설명 후 실험 참여 동의를 작성하였다. 동의서 작성이 완료된 후, 현재의 정서 및 자존감의 기저선을 확인하기 위해 시각 유추 척도(VAS) 및 한국판 상태 자존감 척도(K-SSES)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조자와 참가자 간 교류 및 상대방에 대한 평가

연구 목적을 참가자에게 은폐하고자 동조자와 참가자가 대화를 하기 전, 글을 쓰는 시간을 추가하였다. 글쓰기 과제는 ‘공공장소에서 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였다. 글쓰기 이후 참가자와 동조자는 5분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화는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 뒤, 주어진 질문 10개 중 3개를 선택하여 서로 묻

고 대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질문은 Snyder와 Swann(1978)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직업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동조자는 프로토콜대로 질문하고 대답하였다. 대화를 다 마친 후 참가자와 동조자는 모두 호감도 측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긍정적 피드백의 조건에서는 참가자에게 항목당 7-8점을 주어 72점 만점에서 62점의 점수를 주었다.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항목당 2-3점을 주게 되어 72점 만점에서 18점의 점수를 주었다. 동조자의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동조자에게 피드백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드백 점수 조작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긍정 피드백 및 부정 피드백 제공

상대방의 피드백을 보기 전에 정서 및 상태 자존감 설문지를 작성한 뒤, 중립과제를 2분간 실시하였다. 피드백 전후에 실시한 설문간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짧고, 피드백 전/후 자존감과 정서를 바로 측정했을 때, 참가자들이 연구 목적에 대해 쉽게 알아차리고 응답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상호작용을 실시한 선행연구(Collins, Parks, & Marlatt, 1985; Magee, Galinsky, & Gruenfeld, 2007; Swann & Hill, 1982)를 참고하여 중립과제를 시행하였다. 정서 및 자존감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성인용 웨슬러 지능 검사의 바퀴쓰기 과제의 기호를 일부 변경하여 중립과제로 사용하였다. 중립과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립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중립과제 실시 이후에는 상대방의 호감도를 평가한 설문지를 서로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자신의 평가지를 상대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종이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해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동의서를 받은 이유는, 참가자가 동조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주었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동조자에게 보여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 부정적인 기분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드백을 받기 전, 참가자 스스로가 동조자에게 내린 점수로 인해 받게 될 수 있는 정서와 자존감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평가지 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후, 각자 평가 제공 동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 중 한 명이 다른 실험실에서 실험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때 동조자를 실험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동조자가 자리를 비운 뒤, 참가자에게 동조자의 평가라며 조

작된 점수를 보여주었고 평가를 본 다음에 참가자는 이전에 실시했던 동일한 중립 과제를 2분 동안 추가로 실시하였다. 중립과제까지 모두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정서, 상태자존감, BDI-II 설문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디브리핑 단계

디브리핑 단계에서는 실험 참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다음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었다. 그 다음 본 실험이 무엇에 관한 실험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예상으로 인해 실험 중 보고했던 내용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디브리핑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실험 목적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다섯 명의 참가자는 사회불안과 관련된 실험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두 명의 참가자는 피드백에 대한 실험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험 목적에 대해 예상을 하였다고 대답한 참가자들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받고난 뒤 정서나 자존감에 영향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디브리핑 단계에서 제공된 평가가 참가자의 실제 사회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프로토콜대로 주어졌음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참가했던 참가자가 동조자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이후 현재의 정서상태 및 실험에 대한 궁금증, 불만 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눈 후, 연구로 인해 정서상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때 연구자 및 연구 책임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와 더불어 당일 측정 BDI-II 점수가 높았던 우울집단 학생들에게는 교내의 학생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화 추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구하였다. 일반화 추정식은 반복측정 ANOVA(repeated ANOVA)와 다르게, 정규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 데이터 수에 따라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석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일반화추정식(GEE)을 사용하였고, 추출 방식을 robust로 사용했다. 사후 검증에 Bonferroni 방식을 채택하여 각 변인들의 주효과 및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Nasari, Alavi Majd, Kariman, & Sourtiji, 2016).

본 분석에서는 피드백 조건(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과 집단(우울집단, 통제집단)에 따라 자존감 및 긍정/부정 정서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개인 내 변인으로 세 번의 측정 시점(기저선, 피드백 전, 피드백 후)에 대한 자존감 및 정서를, 개인 간 변인에는 집단(우울집단, 통제집단)과 피드백 조건(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을 대입하였다. 2×2×3 모델로, 피드백 조건(조건), 집단(집단), 측정 시점(시점) 간 주효과와 단순효과를 구하였다.

결 과

실험 조작(manipulation)의 확인

조작(manipulation)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드백 이전과 이후 시점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Tables 1, 2를 살펴보면, 긍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통제집단과 우울집단 모두 긍정 정서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부정 정서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 피드백 조건에서도 역시 긍정 정서의 평균값이 감소하고 부정 정서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고자 각 집단별로 피드백을 받기 전인 시점 2와 피드백을 받은 직후인 시점 3의 정서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긍정 피드백을 받은 통제집단에서 긍정 정서의 증가 및 부정 정서의 감소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긍정 정서: $t(13) = -1.78, p = .09$, 부정 정서: $t(13) = 2.11, p = .06$). 부정 피드백을 받은 통제집단에서는 부정 정서의 증가가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t(14) = -1.59, p = ns$. 긍정 정서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t(14) = 3.63, p < .05$. 또한 긍정 피드백을 받은 우울집단에서는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의 변화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긍정 정서: $t(12) = -.519, p = ns$, 부정 정서: $t(12) = 2.62, p = ns$), 부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울집단은 긍정 정서 감소와 부정 정서의 증가는 모두 유의하였다(긍정 정서:

$t(12) = 3.32, p < .05$, 부정 정서: $t(12) = -4.89, p < .001$). 비록 일부 통계치가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피드백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나타난 바, 실험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Henriques & Leitenberg, 2002).

집단별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 변화

집단, 피드백 조건 및 측정 시점에 따른 자존감 변화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집단×조건×시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Wald $\chi^2 = 7.27, p = .03$ (Figure 2, Table 3).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피드백의 단순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경우, 시점3에서 긍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부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 간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Wald $\chi^2 = 3.34, p = ns$. 반면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시점 3에서 긍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부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 간 자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Wald $\chi^2 = 7.27, p < .01$. 즉, 시점 1과 시점 2에서 통제집단과 우울집단 모두가 피드백 조건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시점 3에서는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긍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부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 간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커진 것이다(Table 4).

이 외에도 시점에 대한 단순효과를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경우, 조건에 상관없이 시점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긍정 피드백: Wald $\chi^2 = 19.16, p < .01$, 부정 피드백: Wald $\chi^2 = 10.86, p < .01$).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 검증

Table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ositive Affect

| Group | Condition | Time | | |
|------------|-----------|--------------------|---------------------------|--------------------------|
| | | Baseline M (SD) | Before Feedback M (SD) | After Feedback M (SD) |
| Control | Positive | 4.05 (3.25) | 4.7 (2.65) | 5.5 (3.13) |
| | Negative | 3.33 (1.65) | 3.59 (2.20) | 2.48 (1.79) |
| Depressive | Positive | 1.96 (2.25) | 3.47 (2.74) | 3.80 (2.56) |
| | Negative | 4.05 (2.25) | 3.38 (2.03) | 1.82 (1.64) |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Negative Affect

| Group | Condition | Time | | |
|------------|-----------|--------------------|---------------------------|--------------------------|
| | | Baseline M (SD) | Before Feedback M (SD) | After Feedback M (SD) |
| Control | Positive | 1.49 (2.20) | 0.71 (0.93) | 0.31 (0.39) |
| | Negative | 1.42 (1.60) | 1.07 (2.14) | 1.73 (1.84) |
| Depressive | Positive | 2.84 (2.61) | 1.81 (1.52) | 1.68 (1.74) |
| | Negative | 2.13 (1.76) | 3.51 (2.61) | 4.96 (3.27) |

Table 3. Result of GEE Analysis of Group × Condition × Time in Self-Esteem

| Factor | Wald χ^2 | df | p |
|--------------------------|---------------|----|-----|
| Condition | 5.26 | 1 | .02 |
| Group | 35.28 | 1 | .00 |
| Time | 6.27 | 2 | .04 |
| Condition × Group | 0.33 | 1 | .57 |
| Condition × Time | 81.53 | 2 | .01 |
| Group × Time | 4.07 | 2 | .13 |
| Condition × Group × Time | 7.27 | 2 | .03 |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f-Esteem

| Group | Condition | Time | | |
|------------|-----------|--------------------|---------------------------|--------------------------|
| | | Baseline M (SD) | Before Feedback M (SD) | After Feedback M (SD) |
| Control | Positive | 77.00 (1.86) | 79.29 (1.61) | 78.79 (1.61) |
| | Negative | 71.53 (2.19) | 76.07 (2.21) | 74.13 (1.97) |
| Depressive | Positive | 61.62 (3.71) | 64.08 (4.22) | 67.92 (3.35) |
| | Negative | 59.15(2.31) | 57.77 (2.91) | 54.46 (3.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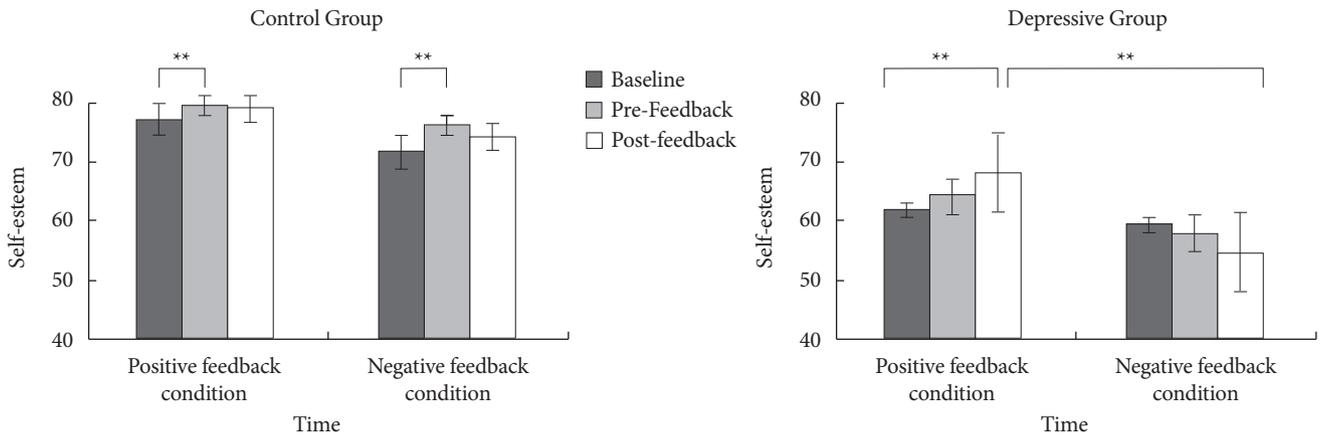


Figure 2. Change of self-esteem by time and condition. ** $p < .01$.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집단의 경우, 긍정 및 부정 피드백 조건 모두에서 시점 1과 시점 2 사이의 자존감 차이가 유의했다, $p < .01$. 반면 우울집단의 경우, 긍정 피드백 조건에서만 시점에 따라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Wald \chi^2 = 11.74, p < .01$. 이에 대해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긍정 피드백 조건의 경우 시점 1과 시점 3 사이의 자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마지막으로 집단의 단순효과를 살펴봤을 때, 조건에 상관없이 시점 1, 시점 2, 시점 3 모두에서 통제집단이 우울집단보다 유의하게 자존감이 높았다(긍정 피드백: 시점 1, $Wald \chi^2 = 13.71, p < .01$, 시점 2, $Wald \chi^2 = 11.35, p < .01$, 시점 3, $Wald \chi^2 = 8.54, p < .01$, 부정 피드백: 시점 1, $Wald \chi^2 = 15.14, p < .01$, 시점 2, $Wald \chi^2 = 24.98, p < .01$, 시점 3, $Wald \chi^2 = 22.01, p < .01$).

집단별 피드백에 따른 정서 변화

긍정 정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긍정 정서에 대한 집단×조건×시점 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집단×조건×시점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d \chi^2 = 4.76, p = ns$. 즉, 피드백에 따른 정서의 변화에 있어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다만, 조건×시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Wald \chi^2 = 29.73, p < .001$.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 피드백 조건에서 시점 1과 시점 2의 긍정 정서 평균 차이가 유의했으며, $p < .001$ 시점 1과 시점 3의 긍정 정서 차이도 유의하였다, $p < .001$. 또한 부정 피드백 조건에서는 시점 1과 시점 3의 긍정 정서 차이가 유의했고 $p < .001$, 시점 2와 시점 3 사이의 긍정 정서 차이도 유의하였다, $p < .001$.

주효과의 경우, 조건의 주효과, 집단의 주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Table 5. Result of GEE Analysis of Group×Condition×Time in Positive Affect

| Factor | Wald χ^2 | df | p |
|--------------------------|---------------|----|-----|
| Condition | 2.11 | 1 | .15 |
| Group | 2.40 | 1 | .12 |
| Time | 6.61 | 2 | .04 |
| Condition × Group | 2.12 | 1 | .15 |
| Condition × Time | 29.73 | 2 | .00 |
| Group × Time | 1.04 | 2 | .59 |
| Condition × Group × Time | 4.76 | 2 | .09 |

않았으나, 시점에서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Wald \chi^2 = 6.61, p = .04$. Table 1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통제집단 및 우울집단 모두에서 긍정 정서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통제집단 및 우울집단 모두에서 긍정 정서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했을 때,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부정 정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조건×시점 간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6). 분석 결과, 집단×조건×시점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d \chi^2 = 4.33, p = ns$. 피드백에 따른 부정 정서의 변화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조건×시점 사이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Wald \chi^2 = 21.42, p < .001$.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긍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시점 3의 부정 정서가 시점 1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 = .04$. 부정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시점 1과 시점 3 사이의 부정 정서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1$, 시점 2와 시점 3사이의 부정 정서 차이도 유의했다, $p < .001$. 그 결과, 부정 피드백을 받은 경우의 부정 정서는 긍정 피드백을 받은 후의 부

Table 6. Result of GEE Analysis of Group × Condition × Time in Negative Affect

| Factor | Wald χ^2 | df | p |
|--------------------------|---------------|----|-----|
| Condition | 5.12 | 1 | .02 |
| Group | 14.85 | 1 | .00 |
| Time | 5.21 | 2 | .07 |
| Condition × Group | .93 | 1 | .33 |
| Condition × Time | 21.43 | 2 | .00 |
| Group × Time | 4.32 | 2 | .16 |
| Condition × Group × Time | 4.33 | 2 | .16 |

정 정서보다도 유의하게 컸다, $p < .001$.

한편, 집단의 주효과의 경우(Table 2), 통제집단의 부정 정서 평균이 우울집단의 부정 정서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Wald $\chi^2 = 14.86$, $p < .01$. 조건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Wald $\chi^2 = 5.12$, $p = .02$, 긍정 피드백 조건의 부정 정서 평균보다 부정 피드백 조건에서의 부정 정서가 유의하게 컸다. 하지만 부정 정서에 있어 시점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d $\chi^2 = 5.21$, $p = ns$.

논 의

본 연구는 낮은 자존감이 우울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맥락에서 설명하는 자기 확증 이론 및 자기 고양 이론의 통합적 설명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통합 이론에 따르면, 인지적 수준에서는 자기 확증 이론을, 정서적 수준에서는 자기 고양 이론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존감과 기분의 변화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동조자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실험실 입장 직후, 피드백을 받기 전, 후 세 시점의 기분과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모두에서 조건과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후 부정 및 긍정 정서에 변화를 보였는데,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부정적 정서의 증가와 긍정적 정서의 감소,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긍정적 정서의 증가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수준에서 자기 고양 동기가 우세하다는 통합적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인지적 수준에서의 반응인 자존감의 경우에는 조건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집단에 따라 달랐다. 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없었으나, 긍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자존감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에 불일치하는 긍정 피드백

을 받았을 때, 자존감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통합 이론에 기반한 가정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또한 우울한 개인이 자존감에 일치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자존감 저하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과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자존감이 낮은 우울한 사람이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용하고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지녔음에도 부정적 피드백을 수용하여 자존감이 저하되기 보다는 자존감을 향상 혹은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설과 달리, 우울집단에서 긍정 피드백에서 자존감이 상승하고, 부정 피드백에서 자존감이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Vignoles, Regalia, Manzi, Golledge와 Scabini(2006)의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자존감이 자기 고양이나 자기 확증과 같은 한 가지 동기로만 설명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Swann 등(1992)도 이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선호하며, 특히 인지적인 자원이 제한적일 때 우호적인 피드백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이 피드백에 의해 자존감이 상승한 것은 이들의 대인관계 민감성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Crocker & Park, 2004). Boyce와 Parker(1989)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우울증의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avidson, Zisook, Giller와 Helms(1989) 역시 대인관계 민감성이 높은 것과 만성 우울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우울한 개인의 피드백에 따른 자존감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인지적 자원 수준이나 평가 받는 특성에 대한 변화 가능성, 대인관계 민감성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이론을 근거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존감과 정서 변화를 확인한 것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비록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긍정 정서의 경우에는 조건과 시점 간 상호작용이 집단에 의해 조절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통제집단의 경우 긍정 정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피드백 전 $M = 4.7$, $SD = .68$; 피드백 후 $M = 5.5$, $SD = .80$). 반면, 우울 집단에서는 긍정 정서의 차이가 통제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피드백 전 $M = 3.47$, $SD = .73$; 피드백 후 $M = 3.8$, $SD = .68$). 한편, 부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통제집단보다 우울집단에서 긍정 정서의 감소폭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의 정서가 긍

정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변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여 준다. 특히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폭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긍정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에 대해서 감소된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ylsma, Morris, & Rottenberg, 2008; Koval, Kuppens, Allen, & Sheeber, 2012).

이러한 결과는 Ong, Goodman과 Zaki(2018)의 연구와 같이 자기 고양 이론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안녕감(well-being)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정보로부터 건강한 정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고양의 편향을 보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울집단보다 긍정 정서의 폭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자기 고양 편향(bias)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울집단은 이러한 완충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면서 긍정적 정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효과의 부족이 우울의 취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통제집단과 다르게,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받기 전인 시점 2에서는 조건에 따라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은 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 피드백 조건과 부정 피드백 조건 사이의 자존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은 뒤, 자존감의 변화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주변의 피드백에 의해 자존감이 쉽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피드백을 단순히 성공이나 실패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평가를 자기 평가로까지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Crocker & Park, 2004). 최근 연구들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정한 자존감이 우울과 더 큰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존감의 변동성이 6개월 뒤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유의했다(Franck & De Raedt, 2007). 또한, 자존감의 변동성은 우울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각성과 관련이 있었다(Zeigler-Hill & Wallace, 2012).

한편 예상과 달리 통제집단에서, 피드백과 상관없이 기저선보다 피드백을 받기 전 자존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보인 자존감의 변화와는 다른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한 사람들은 명백한 긍정 피드백을 받은 뒤에 자존감이 상승했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피드백과는 상관없이 파트너와 함께 상호작용을 한 뒤에 자존감의 향상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Sedikides, Gaertner와 Toguchi(2003)의 연구에 의하면, 어떠한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

가 자기 고양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연구에 의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중요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평가받는 상황보다 대인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 고양을 이루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 이를 좀 더 확장시켜 사회계기판 이론(sociometer theory; Leary, 2005)까지 적용해 볼 수 있다. 자존감은 사회적인 상황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돕는 심리학적 체계(psychological system)의 일환으로 작용한다. 즉,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선호되지 않는 등 자신의 사회적 가치(relational value)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저하된다. 반대로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승인되었다 여겨져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대입해 본다면, 통제집단의 경우 상대의 피드백과 상관없이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이 상승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참가자들이 동조자에게 주었던 호감도 점수를 추가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우울집단 사이에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우울집단과 통제집단 모두가 동조자와의 교류 직후에 동조자에게 느낀 호감은 비슷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집단에 비해 통제집단은 동조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호의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단순한 교류보다 정확하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명확한 긍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적인 교류 과정 속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통제집단과 구별되는 자존감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시각 유추 척도(VAS)로,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해당하는 문항이 하나인 단일 척도였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제시된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의 정서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자존감과 다르게 정서 상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감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 전과 후의 긍정, 부정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통제치가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바, 실험 조작이 충분히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우울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그들은 주변 환경이나 피드백을 받추하는 과정을 통해 기분이나 자존감이 변화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피드

백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우울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기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시사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고양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과도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특성(excessive reassurance seeking)을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고 우울이 심화되며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로를 보인다(Joiner, Alfano, & Metalsky, 1992; Starr & Davila,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기에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추적관찰 하면서 이를 통해 자존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동조자의 성격적 특성이 피험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두 명의 동조자를 두었고, 두 동조자가 프로토콜에 따라 동일한 수의 실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동조자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동조자가 피험자로부터 받은 호감도에 대한 점수를 비교했으나 동조자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 = -.40$, $p = ns$. 또한, 동조자와의 상호작용 이후 피험자들의 자존감, 긍정, 부정 정서를 비교했으나, 동조자 간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자존감 $t = -.36$, $p = ns$; 긍정 정서 $t = -.30$, $p = ns$; 부정 정서 $t = .02$, $p = ns$).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임상집단이 아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BDI-II 점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고,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여성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자와의 상호작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변인을 통제하고자 동조자와 참가자 모두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을 하였다. 그러나 피험자와 동조자가 동일한 성별이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대인관계 역동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실험을 통해 피드백이 자존감과 정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조자를 두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인 교류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설계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사회적 교류 없이 성취나 수행에 대해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던 이전의 실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이 정서와 인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기 고양 이론과 자기 확증 이론을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울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정서 변화가 통제집단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경향성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치료적인 개입을 고민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이 긍정 피드백을 받은 직후 경험하는 자기개념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과 긍정 정서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자존감의 변동성 자체만 관심을 가졌던 연구들과 다르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울집단이 통제집단과 다른 자존감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우울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는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도 자존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울한 사람들은 자존감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직접적으로 주어진 긍정 피드백에 대해서만 우울한 사람들은 자존감의 변화를 보였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의 변동 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자존감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시사된다.

References

- Alicke, M. D., & Sedikides, C. (2011). *Handbook of self-enhancement and self-protection*. New York, NY: Guilford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ngst, J., Gamma, A., Gastpar, M., Lépine, J. P., Mendlewicz, J., & Tylee, A. (200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2, 201-209.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78, 490-498.
- Boyce, P., & Parker, G. (1989).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interpersonal sensitivit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3, 341-351.
- Bradley, B., & Mathews, A. (1983). Negative self-schemata in clinical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173-181.
- Brown, J. D. (2010). High self-esteem buffers negative feedback: Once more with feeling. *Cognition and Emotion*, 24, 1389-1404.
- Burt, V. K., & Stein, K. (2002). Epidemiology of depression throughout the female life cycle.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3, 9-15.
- Butler, A. C., Hokanson, J. E., & Flynn, H. A.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lability and low trait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66.
- Bylsma, L. M., Morris, B. H., & Rottenberg, J. (2008). A meta-analysis of emotional reac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Clinical*

- Psychology Review*, 28, 676-691.
- Cai, H., Brown, J. D., Deng, C., & Oakes, M. A. (2007). Self-esteem and culture: Differences in cognitive self-evaluations or affective self-regard?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162-170.
- Campbell, J. D., & Lavalley, L. F. (1993).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F. Baumeister (Ed). *Self-esteem* (pp. 3-20). Boston, MA: Springer US.
- Chen, S., Chen, K. Y., & Shaw, L. (2004). Self-verification motives at the collective level of self-defi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77-94.
- Collins, R. L., Parks, G. A., & Marlatt, G. A. (1985). Social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The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model status on the self-administration of alcoho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189.
- Coyne, J. C. (1976).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Coyne, J. C., Gallo, S. M., Klinkman, M. S., & Calarco, M. M. (1998). Effects of recent and past major depression and distress on self-concept and cop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86-96.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
- Davidson, J., Zisook, S., Giller, E., & Helms, M. (1989). Symptoms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in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0, 357-368.
- Deeprouse, C., & Holmes, E. A. (2010). An exploration of prospective imagery: the impact of future events scale.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8, 201-209.
- Franck, E., & De Raedt, R. (2007). Self-esteem reconsidered: Unstable self-esteem outperforms level of self-esteem as vulnerability marker for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531-1541.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 187-208.
- Hammen, C.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49-57.
- Hammen, C. (2009). Adolescent depression: Stressful interpersonal contexts and risk for recurr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 200-204.
- Hammen, C., & Zupan, B. A. (1984). Self-schemas, depression, and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7, 598-608.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95-910.
- Henriques, G., & Leitenberg, H. (2002).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role of cognitive errors in the development of depressed mood following negative social feedbac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245-260.
- Hokanson, J. E., Rubert, M. P., Welker, R. A., Hollander, G. R., & Hedeon, C. (1989). Interpersonal concomitants and antecedents of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09.
- Joiner, T. E. (2000). Depression's Vicious Scree: Self-Propagating and Erosive Processes in Depression Chronicit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203-218.
- Joiner, T. E., Alfano, M. S., & Metalsky, G. I. (1992). When depression breeds contempt: reassurance seeking, self-esteem, and rejection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by their roomm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65.
- Judge, T. A., Thoresen, C. J., Bono, J. E., & Patton, G. K. (2001). The job satisfaction–job performance relationship: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7, 376-407
- Kellough, J. L., Beevers, C. G., Ellis, A. J., & Wells, T. T. (2008). Time course of selective attention in clinically depressed young adults: An eye tracking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6, 1238-1243.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Koretz, D., Merikangas, K. R., . . . Wang, P. S. (2003). The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NCS-R). *Jama*, 289, 3095-3105.
- Ko, E. J. (2014) *Analysis on the emotional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self-esteem in the occurrence of negative life ev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oster, E. H., De Raedt, R., Leyman, L., & De Lissnyder, E. (2010). Mood-congruent attention and memory bias in dysphoria: Exploring the coherence among information-processing bia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 219-225.
- Koval, P., Kuppens, P., Allen, N. B., & Sheeber, L. (2012). Getting stuck in depression: The roles of rumination and emotional inertia. *Cognition and Emotion*, 26, 1412-1427.
- Kwon, S. M. (1996) Some characteristics of depressed people in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self-cogni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 17-37
- Leary, M. R. (2005). Sociometer theory and the pursuit of relational value: Getting to the root of self-esteem.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 75-111.
- Lim, S. Y., Lee, E. J., Jeong, S. W., Kim, H. C., Jeong, C. H., Jeon, T. Y., . . . Kim, J. B. (2011). The valid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Scale 2 in Korean version. *Anxiety and Mood*, 7, 48-53
- Magee, J. C., Galinsky, A. D., & Gruenfeld, D. H. (2007). Power, propensity to negotiate, and moving first in competitive inter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200-212.
- Naseri, P., Majd, H. A., Kariman, N., & Sourtiji, A. (2016). Com-

- parison of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mixed effects models (MEM) and repeated measures ANOVA in analysis of menorrhagia data. *Journal of Paramedical Sciences*, 7, 32-40.
- Ong, D. C., Goodman, N. D., & Zaki, J. (2018). Happier Than Thou? A Self-Enhancement Bias in Emotion Attribution. *Emotion*, 18, 116-126.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695.
- Ottensbreit, N. D., & Dobson, K. S. (2004). Avoidance and depression: The construction of the Cognitive-Behavioral Avoidance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293-313.
- Park, H. S. (2013).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State Self-Esteem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Koera.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0.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 213-240.
- Starr, L. R., & Davila, J. (2008).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je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762-775.
- Sung, H. M., Kim, J. B., Park, Y. N., Bai, D. S., Less, S. H., & Ahn, H. N. (2008).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4, 201-212.
- Swann, W. B. (2011). Self-verific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2, 23-42.
- Swann, W. B., Chang-Schneider, C., & Larsen McClarty, K.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 84.
- Swann, W. B., Griffin, J. J., Predmore, S. C., & Gaines, B. (1987). The cognitive-affective crossfire: When self-consistency confronts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81-889.
- Swann, W. B., & Hill, C. A. (1982). When our identities are mistaken: Reaffirming self-conceptions throug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9.
- Swann, W. B., Wenzlaff, R. M., Krull, D. S., & Pelham, B. W. (1992). Allure of negative feedback: Self-verification strivings among depressed pers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293.
- Swann, W. B., Wenzlaff, R. M., & Tafarodi, R. W. (1992). Depression and the search for negative evaluations: More evidence of the role of self-verification striving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14-317.
- Snyder, M., & Swann, W. B. (1978). Hypothesis-testing processe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202-1212.
- Valentiner, D. P., Skowronski, J. J., Mounts, N. S., & Holzman, J. B. (2017). Social Anxiety and Relationship Formation During the College Transition: Self-Verification, Self-Image,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31, 136-148.
- van Tuijl, L. A., de Jong, P. J., Sportel, B. E., de Hullu, E., & Nauta, M. H. (2014).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nd their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t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5, 113-121.
- Vaughn, C. A. (2001). *The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criticism on self-schema and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United States of America.
- Vignoles, V. L., Regalia, C., Manzi, C., Golledge, J., & Scabini, E. (2006). Beyond self-esteem: Influence of multiple motives on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308.
- Whisman, M. A., & Kwon, P. (1993). Life stress and dysphoria: The role of self-esteem and hope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54.
- Zealley, A. K., & Aitken, R. C. (1969). Measurement of mood.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62, 993-995.
- Zeigler-Hill, V., & Abraham, J. (2006).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stability of self-esteem and affec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 668-687.
- Zeigler-Hill, V., & Wallace, M. T. (2012). Self-esteem instabil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elf and Identity*, 11, 317-342.

국문초록**우울한 여대생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반응: 정서 및 자존감 변화를 중심으로**

이지선·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상태 자존감과 정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 참여에 동의한 여학생들 중, 26명을 우울집단으로, 29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동조자와 정해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대화를 나눈 이후 긍정 피드백과 부정 피드백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자존감 및 정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실 입장 직후, 평가를 받기 직전, 평가를 받은 직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상태 자존감과 정서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 변화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존감의 경우, 우울집단은 긍정 피드백을 받은 후, 기저선에 비해 상태 자존감이 유의하게 상승했다. 이는 우울집단의 상태 자존감이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자기 확증 이론과 자기 고양 이론의 통합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우울, 사회적 피드백, 정서, 자존감